오카야마 시장 메일 매거진(131) 레이와 2년 11월 5일호

【급부형 장학금 특례모집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번에 오카야마시에서는 고교생 등의 지급형(급부형) 장학금 제도를 확충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감한 세대를 특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고교생 등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이나 졸업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성적 요건을 두지 않는 변제 불필요한 지급(급부) 제도로서 금년도에 새롭게 창설한 것입니다.

이미 7월부터 9월까지 모집을 실시해 762명의 지급을 결정했으며 연간 60,000엔(통신제는 37,000엔)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 중이지만 전망이 서지 않는다', '직장이 몇 달이나 휴업 중이라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자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폐업했다' 등 가계상황이 급변한 분들의 상담이 담당부서로 밀려들고 있어 이런 분들을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는 전년 소득 기준, 시민세 소득 비율 비과세 세대가 대상입니다만, 특례로 금년의 소득 전망이 시민세 소득비율 비과세에 해당(예상) 세대에 대해서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례 조치는 금년도로 한정한 것입니다만, 이번에 대상이 되는 세대는 내년도에 비과세 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city.okayama.jp/kurashi/0000021677.html